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2. 12. 5

시 정훈 연구위원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1/28-12/2) 및 전망

<서울외환—USDSP—체결> 2022/10/31 종:1,421.10 ▼0.40 -0.03% 시:1,423.00 고:1,423.00 저:1,419.50

- 11.28일 1,340.20(+16.5): 위안화 약세 속 상승. 중국 기준을 인하에 따른 위안화 약세 속 상승 출발 후, 장 초반 증시 낙폭 축소에 1334.3원까지 저점 낮춤. 이후 아시아 증시 하락 및 외인 증시 순매도에 1340원 근처로 레벨 높인 후 등락 이어감.
- 11.29일 1,326.6(-13.6): 위안화 강세 및 네고 유입에 하락. 간밤 연준 인사들 매파적 발언에 1342원까지 고점 높인 후, 네고 유입에 상단 제한되며 1330원대 후반 등락 이어감. 이후 중국 당국 시위 진정 노력에 위안화 강세 전환하고 증시 상승하자 하락해 1320원대 중반 흐름 이어감.
- 11.30일 1,318.8(-7.8): 네고 및 위험선호 회복 속 하락. 장 초반 증시 하락에 연동해 1329.5원까지 고점 높임. 이후 증시 상승폭 확대 및 외인 순매수, 위안화 약세 제한 속 꾸준히 1315.4원까지 레벨 낮춘 후 장 후반 결제 유입에 낙폭 일부 반납.
- 12.1일 1,299.7(-19.1): 간밤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조절 언급에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소식에 따른 위험선호 속 급락
- 12.2일 1,299.9(+0.2): 위안화 약세 및 외인 순매도에 소폭 상승. 1300원 중심 좁은 등락 이어가다가 중국 당국 백신접종 확대 발표에 따른 방역 완화 기대로 위안화 강세 보이자 저점 낮춤. 이후 외인 증시 순매도, 위안화 강세 되돌림에 낙폭 만회.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달러-원은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을 인하하자 유동성 증가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 상승. 위험회피 확대에 따른 아시아 증시 하락 및 외인 증시 순매도 또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주 중반, 달러-원은 중국 당국의 시위 진정 노력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 하락. 중국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과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보급 확대를 발표해 리오픈 기대 자극하자 위험선호 및 증시 외인 순매수 속 원화는 강세 나타냄.
- 주 후반, 파월 의장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 이후 약달러에 달러-원은 1300원 아래로 하향 시도함. 파월 의장은 12월 50bp 인상을 시사해 속도조절 기대감 키우며 달러는 큰 폭 약세 나타냄. 11월 고용지표 영향력은 제한된 모습.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은 차주 12월 FOMC 앞두고 연준 속도조절 전망 속 달러 약세와 중국 방역 완화 기대 계속되며 추가 하락 시도 예상됨. 차주 13-14일 FOMC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는 가운데, 속도조절 기대 반영하며 달러는 약세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임. 중국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 이후 지난 주말 주요 도시에서 PCR 검사 의무화 완화하는 등 중국 당국의 가파른 완화책 발표도 위안화 강세와 위험선호 확대에 따른 환율 하락 요인임.
- 다만 최근 가파른 하락에 따른 하락 속도 조절과 중국 부진한 경기지표 확인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 달러 지지력 나타낼 듯. 주요국 11월 서비스업 PMI, 중국 11월 수출입 지표 발표 예정인 가운데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하단 지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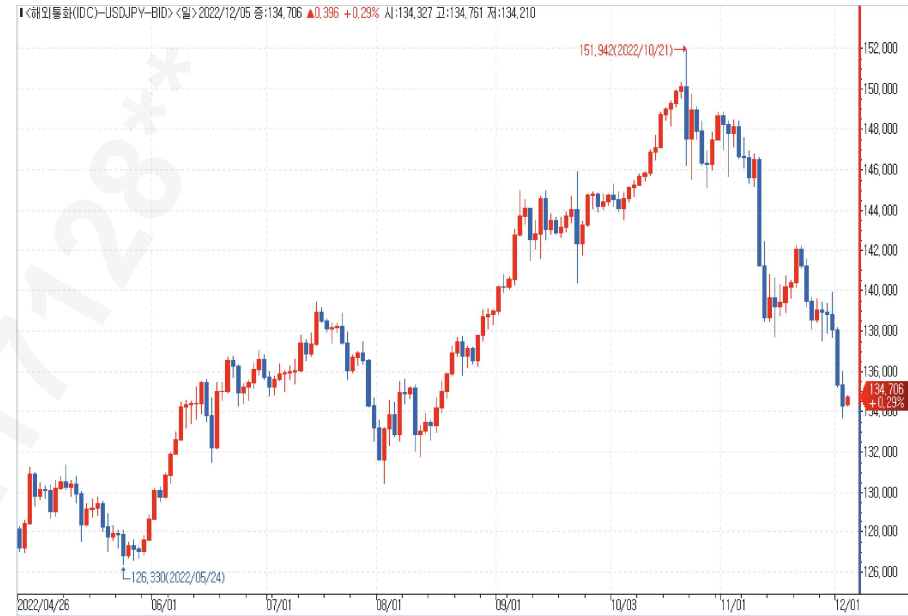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36.0	1342.5	1294.6	1299.3	-23.8

예상거래범위

1,280원 ~ 1,310원



엔·유로화 동향 (11/28~12/2)



유로화 동향

- 주초,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성급한 기대를 차단한 연준 위원의 매파 언급 속에 중국 코로나 확산세 지속과 연준 의장 연설 등에 대한 경계감으로 달러 강세 흐름 속에 약세 출발. 이어 중국 코로나 봉쇄에 대한 시위가 주춤해진 가운데 연준의 강한 매파에 대한 시장의 내성 확대 분위기 등으로 달러는 횡보세를 보인 가운데, ECB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성 매파 기조에도 경기불확실성 등이 상대적으로 우위 보이며 약보합 흐름
- 중반 들어, 연준 의장 브루킹스 연설의 통화정책 속도 조절 언급과 유로존 11월 CPI 예비치가 둔화하면서 경기불확실에 대한 우려 완화로 강세 전환
- 후반 들어, 파월 의장 발언 여파를 소화하는 과정 속 미 PCE물가가 전월에 이어 완화되며 강세 흐름 후, 주 후반, 미 고용이 시장 예상을 웃돌며 견조함을 나타냈음에 더 연준 의장의 비둘기 스탠스 여진이 이어지며 강세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408	1.0544	1.0288	1.0533	+0.0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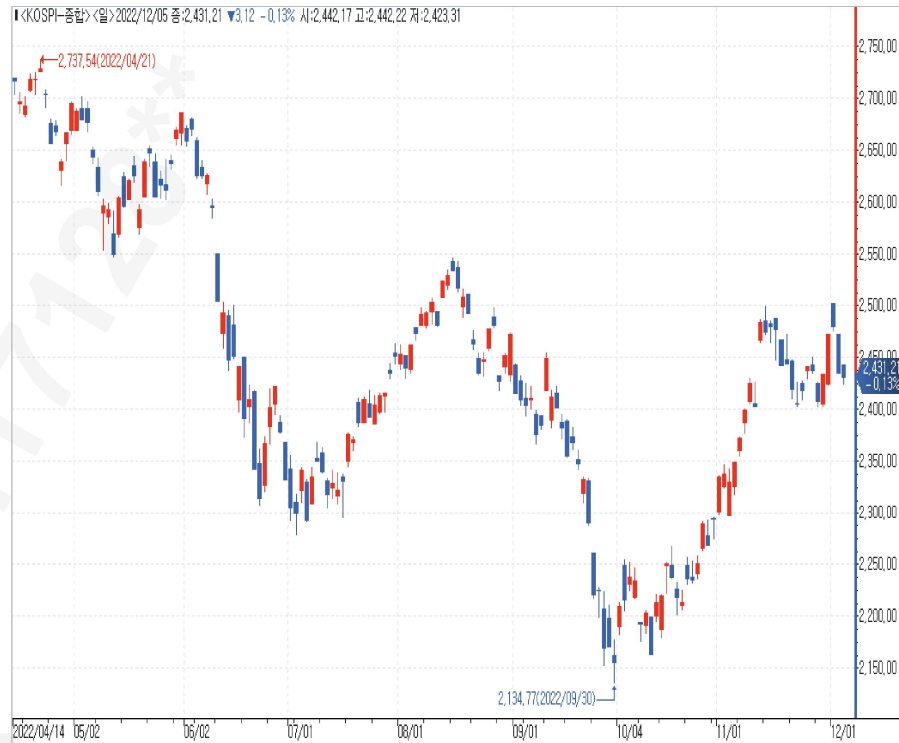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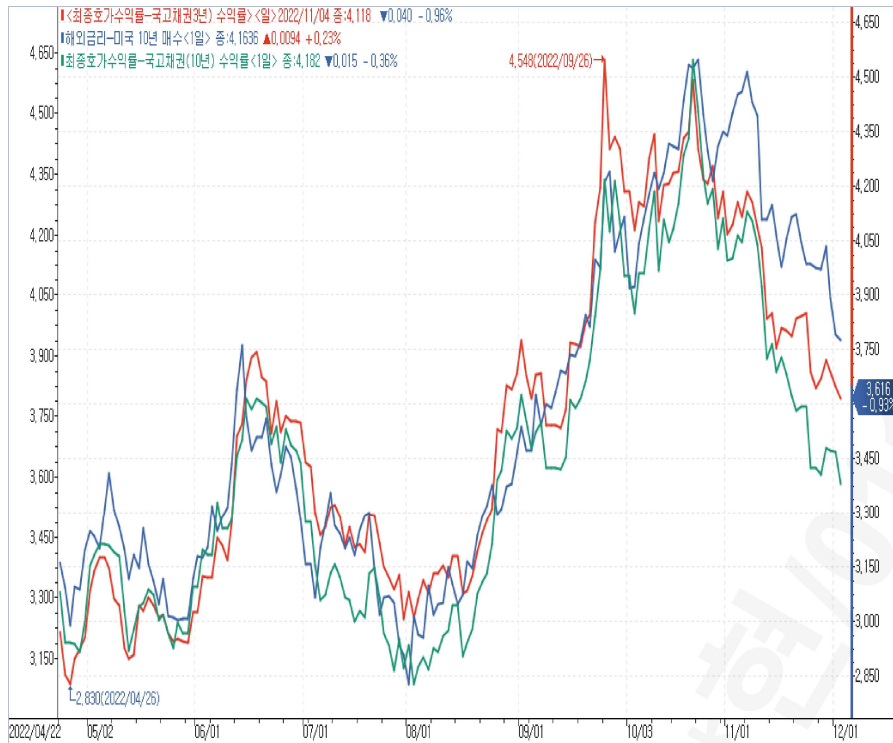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중국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위험회피 강화에 안전자산인 엔화 매수에 확대 속 강세 출발. 이어 중국 코로나 관련 군중 시위의 주춤 등으로 달러가 횡보세 보인 가운데 그간의 과도한 엔화 매도 포지션 청산 등의 영향으로 강세 흐름 지속
- 중반 들어, 파월 의장의 브루킹스 연설에서의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언급 등에 따라 달러 약세 반영하며 강세 흐름 지속 양상
- 후반 들어, 연준의 비둘기적 스탠스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 미 PCE물가 둔화 영향 등을 반영하면서 엔화 강세가 지속된 후, 주 후반, 견조한 고용 증가에도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인 상황에서 PCE 물가 상승이 둔화된 영향 등이 달러 강세를 제한하면서 엔화는 강세 흐름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9.0	139.9	133.6	134.3	-4.7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1/28~12/2]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 초반, 한은과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지원 발표의 시장 심리 호전에도 불구하고 레벨 부담 반영으로 상승 출발. 이어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 소식 등이 위험 선호를 자극하면서 상승 추세 이어진 국면
- 중반 들어,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라 시장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외국인의 단기 국채선물 매수 등으로 단기 구간 위주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파월 의장의 브루킹스 연설이 기존과 달리 상당히 비둘기적 언급을 제시하면서 국고채 시장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으나, 이후 레벨 부담 등이 반영되며 소폭 되돌림을 나타냄. 이어 주 후반, 국내 11월 소비자물가가 5.0% 상승했으나, 전월대비 둔화 추세 보인 가운데 연준 속도 조절 가능성 영향이 이어지며 장기 구간 중심 하락 흐름 보이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연일 확대되는 가운데 시위 우려 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속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강화 등으로 하락 출발. 이어 경기 침체 우려, 연준 인사의 매파 발언 등으로 하락 추세 나타내다 하루 만에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 기대 등으로 상승 전환
- 중반 들어서도 중국의 코로나 방역 해제 기대감 등으로 전일 미 뉴욕증시가 애플 이슈로 부진했음에도 상승세 유지 국면 이어진 양상
- 후반 들어, 연준 의장의 브루킹스 연설에서의 연준 긴축의 속도조절 가능성 언급 등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강도 확대 등으로 큰 폭 상승 후, 주 후반, 그간의 통화정책 안도감과 중국 코로나 완화 기대감 등의 상승 모멘텀 일부 소멸 속 차익실현 니즈 강화 등으로 하락 전환하며 마감